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구조가 1인,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어 2015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됨
- 1인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가구를 세분화된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1인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

□ 1인가구 분석의 기준

- 1인가구의 분석을 위해 가구주의 연령대, 소득분위, 거주지역, 성별 등으로 분류
 - 연령 구분: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 등 5개 그룹으로 구분
 - 소득 분위: 저소득(1-2분위) / 중소득(3-4분위) / 고소득(5-10분위)
 - 지역 구분: 수도권 / 시지역(광역시 및 일반시의 동지역) / 읍면지역
 - 성별: 남/녀
- 분석 자료: 2005/05년 - 2015/16년 사이의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분석

2. 1인가구의 증가 양상 및 전망

□ 1인가구 증가 추이 및 특징

- 지난 30년간 가구의 소형화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여 4인 가구가 급감하고 1인가구가 급증함. 지난 10년간 총 가구 수는 322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4인가구는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203만 가구가 증가
- 2015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청년층이며,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연령층은 중장년층으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장년층(50-64세) 남성이 이에 해당함. 남성은 젊을수록 혼자 살고,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경향성이 나타남

□ 국내외 1인가구 증가 전망

-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가구소형화는 지속될 것으로 2045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36.3%로 전체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부부가구가 21.2%, 부부+자녀가구가 15.9%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년층은 노년으로 진입하여 60대는 현재의 2배, 70대는 3배 이상으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1인가구 비율은 30.6%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파리와 독일의 일부 도시는 1인가구 비중이 50% 초과, 노르웨이 오슬로는 52.9%로 최고 수준)
-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적 삶에 대한 열망 상승, 개인주의적 가치 상승,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성 평등 인식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등에 기인

3.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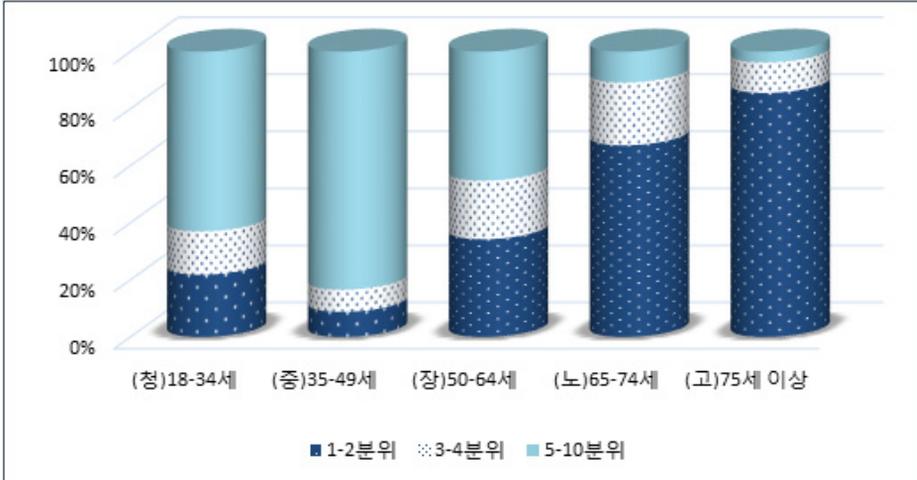
□ 1인가구의 일반적 특징

- 1인가구 학력수준이 다인가구 대비 낮은 편(초졸 이하 비율 26% vs 8%)
- 1인가구화되는 주요한 원인은 가족관계의 해체에 기인
 - 청년은 미혼에 의해, 중년은 미혼과 이혼, 장년은 이혼과 별거, 노년 이후는 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것으로 분석

□ 1인가구의 경제적 특징

- 1인가구는 근로여건이 다인가구에 비해 불안정하고 이른 나이에 상용근로자에서 임시일용근로자로 전환하고 있음. 1인가구는 청중년까지 상용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50세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50세 이후 장년부터 임시일용근로자가 급증하여 경제적 여건이 불안해짐
- 이에 따라 가구소득도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균등화 이후 소득)
- 2016년 기준 1인가구 중 소득1-2분위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다인가구와 대조적
- 연령대별로는 총 178.8만가구가 저소득 1인가구이며 65세 이상에서 931만 가구를 점하고 있고 장년(50-64세)도 많음
- 성별로는 여성의 저소득 1인가구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음
-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6년은 146.8만원이고, 1인가구 중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가 41.2%, 50-74만원 소득인 경우가 전체 1인가구의 22.3%를 점하고 있음

그림 1 |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분포(2016)



주: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2015 인구주택총조사로 보정한 추정치
 자료: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

□ **1인가구의 사회적 특징**

-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관계와 결혼에 대한 사고변화에 기인함. 연령대별로 가족 관계의 변화 양상이 다르고 직접적인 원인과 기저에 자리잡은 요인이 다름

표 1 |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의 원인

연령대	가족관계	직접적 원인	기저에 깔린 요인
청년	가족 미형성	비혼, 만혼	가치관 변화
중장년	가족 해체	이혼, 기러기	경제적 능력, 교육
노년	가족 구성원 탈락	사별	성별 고령화, 기대여명 차이

자료: 저자 작성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노숙인의 증가와 고독사를 들수 있음. 노숙인은 2016년 기준 11,901명으로 파악되고, 시설노숙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장년(50-64세)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무연고 사망자를 일컫는 고독사는 2016년 기준 총 1,232명으로 집계되고, 서울에서 30%로 가장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장년(50-64세)의 남성이 제일 많음. 이러한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시사점

- 1인가구는 근본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와 결혼제도로의 미편입 혹은 탈락으로 발생하며 연령대별 양상이 다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 경제적 상황,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특히 중장년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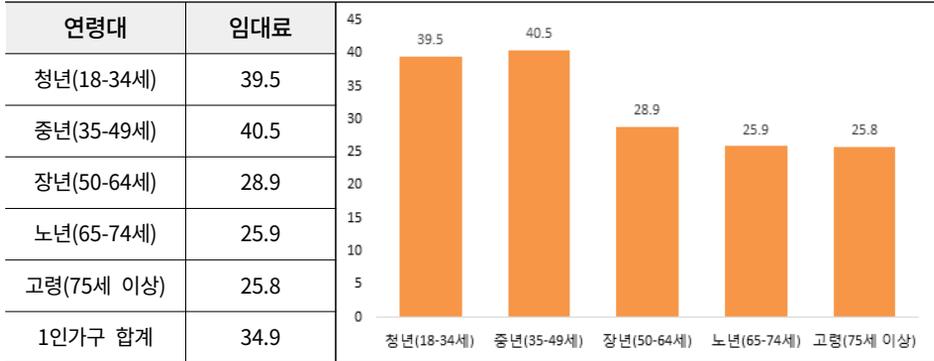
4. 1인가구의 주거특성 및 주거지원 정책

□ 1인가구의 주거특성

- (점유형태) 지난 10년간 1인가구의 전세비중은 하락하고 보증부월세는 증가함.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에서 일관되게 진행된 편이나,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전세감소와 보증부월세 증가가 두드러짐
- (주거비 지출) 2016년 기준 중년(35-49세) 1인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40.5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년(39.5만원), 장년 순으로 나타남. 점유형태별로는 보증부 월세의 임대료 지출이 가장 크고, 지난 10년간 주거비 지출이 지속상승 추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가 4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 연령대별 임대료 지출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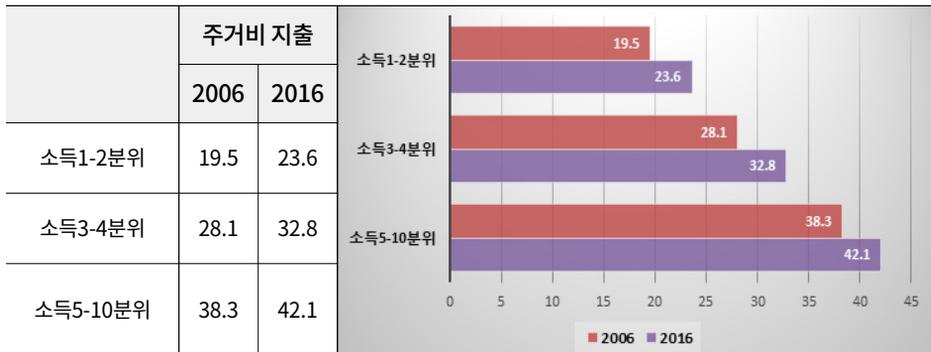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

- (주택유형) 1인가구는 전연령층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다인가구의 경우 청년, 중년, 장년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
- (주거안정성)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연령이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청년층은 82.6%이며, 평균 거주기간도 1.2년에 불과하여 주거안정성이 낮음. 다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이동률이 낮고, 평균 거주기간도 훨씬 길게 나타남

표 3 | 소득수준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단위: 만원)



주: 주거비 지출은 해당 연도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2016년 기준 가격으로 변환함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 | 연령대별 평균 거주기간(2006-2016)

(단위: 년)

거주기간	1인가구		다인가구		평균 거주기간 차이 2016 기준
	2006	2016	2006	2016	
청년(18-34세)	0.9	1.2	2.0	1.8	0.6
중년(35-49세)	2.7	3.0	4.5	4.8	1.8
장년(50-64세)	9.0	6.1	9.5	10.0	3.9
노년(65-74세)	15.4	9.6	13.7	15.8	6.2
고령(75세 이상)	19.0	13.0	16.7	20.0	7.0

자료: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거소비) 연령대별 주거면적은 청년이 가장 좁고 지난 10년간 축소추세임. 2016년 기준 소득1-2분위 청년은 25.6㎡에 불과하여 1인가구 평균 면적인 51.4㎡에 비해 절반 수준임. 그에 비해 주거비 지출이 높아 주거여건이 열악
- (주거정책 소요)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 중년은 구입자금 대출, 장년이후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욕구가 높고 고령층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인됨. 이는 다인가구가 주로 구입자금 대출, 노년층이 개보수, 고령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임

□ 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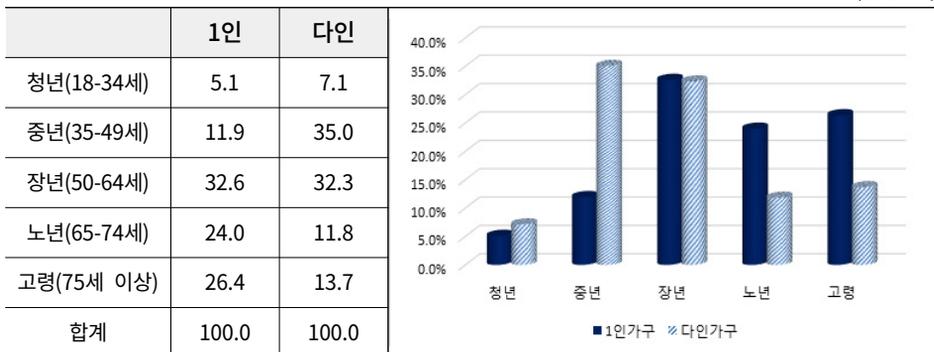
- 1인가구 수 증가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1인가구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1인가구정책은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이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도 자체적으로 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서울형 바우처, 공공원룸, 따복하우스 등)
- 하지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며, 1인가구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부분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것이 대부분임. 향후 급증할 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 1인가구의 공적주거지원 여건

- (영구임대주택 입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시 가점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함. 가구원수가 많고 고령일수록,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를 띄고 있어 1인가구 입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주택 역시 가점에서 부양가족수, 노부모 부양, 미성년자녀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층 1인가구가 불리하나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점 차이가 적은 편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가구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2016년 기준 8.7%로 낮게 나타남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총 81.3만 가구가 수혜중이며 이 중 1인가구가 55.2만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어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앙과 지방에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노인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 중년과 장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공적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미비

표 5 | 연령대별 주거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자료: LH 주택조사자료 (2016.12 기준)

표 6 |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지방정부			
	직접공급	주거비 지원	서울/ 직접공급	부산	경기	
청년(18-34세)	행복주택	대출 지원	주거 급여	희망하우징, 역세권 2030 도생, 청년 도전속 빈집살리기, G밸리 하우스 동작구 세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동지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중년(35-49세)	-			-	-	
장년(50-64세)	-			-	-	
노년(65-74세)	공공실버			빈집살리기 보린주택		
고령(75세 이상)						

자료: 저자 작성

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방안

□ 1인가구 주택정책 수립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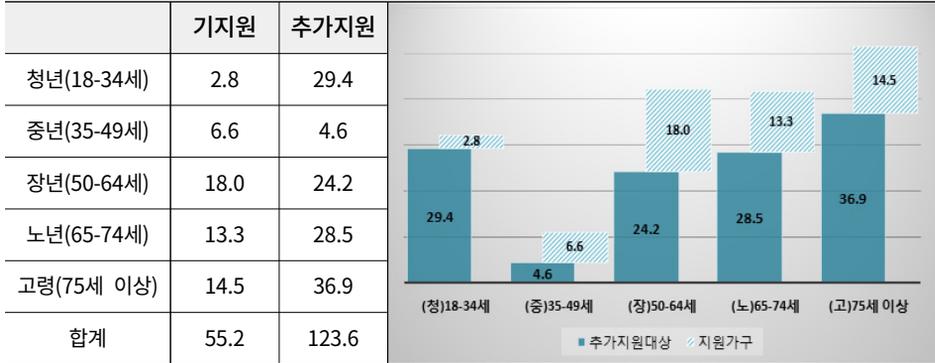
- 유엔 해비타트에서 주택정책의 주요 골자로 제시하는 영역을 기초로, 주택정책의 통합성, 포용성, 지불가능한 주택공급, 적정주택 지원을 정책 수립의 원칙으로 설정. 1인가구의 자립과 상향이동을 위한 주거상향이동 지원을 추가

□ 1인가구의 주택정책 지원 대상 규모

- 1인가구 중 저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연령층 중 주거급여의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123.6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 규모로 추정.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약 29.4만, 장년 24.2만, 노년 28.5만, 고령 36.9만 규모

표 7 | 연령대별 주거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만 가구)



자료: 저자 작성

□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안

- (포용적 주거지원: 1인가구를 포용하는 주거지원 정책) 1인가구를 배제하지 않고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포용하며, 주거종합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1인가구에 불리한 가점제 재검토 제언
- (통합적 주거지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지원,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지원
- (부담가능한 저렴한주택 공급 지원)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저렴한주택 공급,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형 세어하우스 공급 및 코하우징,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 공적지원 주택 공급 검토
- (적정 주택 공급 기준 수립) 3-4인 가구 중심의 면적기준이 아닌 1인가구 거주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 수립,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 부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주거안정성 강화, 노인층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자산증식 및 주거상향이동 지원) 청년층 보증금 마련부 저축상품 도입을 통한 자산증식 지원, 장년층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자가주택 마련 지원, 1인가구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홈리스 방지

6. 결론 및 향후과제

-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주거분야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1인가구 특성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대처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거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지원 대상을 도출하고 포용적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함
-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1인가구의 지역별 실태, 주거욕구 등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이어지고 1인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함